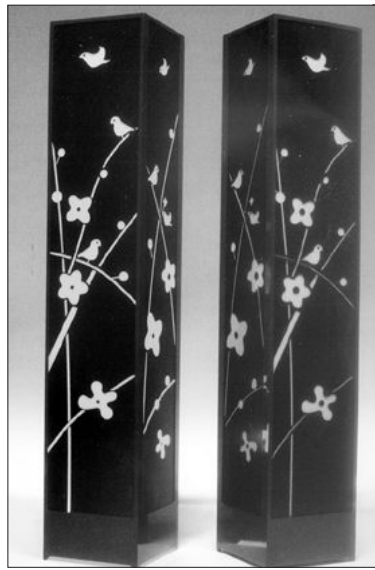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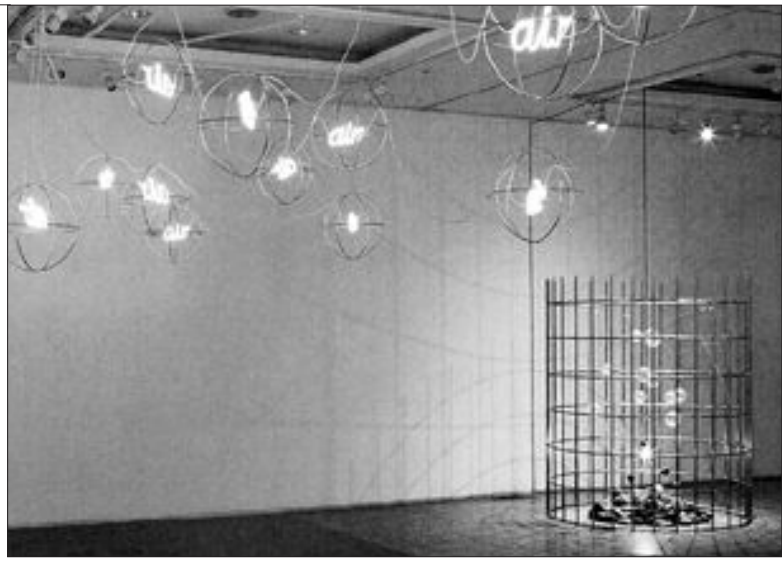
문화



정선휘 작 '사랑'

지역작가들이 광주 LED 기업들의 기술지원을 받아 '광아트(빛예술) 장르를 개척한다.

또 이들 기업들은 작가들의 작품을 상품화해 이익을 얻고, 작가들로부터 디자인 조언도 받는 등 지역 산업과 예술이 결합해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익 작 '무제'

메세나의 진화

지역 작가들, LED 기술지원 받아 '빛예술' 개척

기업은 작가 작품 상품화 등 통해 '윈윈 협약'

최근 지역작가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빛예술연구회를 창설했다.

연구회에는 김상욱, 김숙민, 김진화, 신호운, 이기성, 윤익, 위재환, 진시형, 정선휘, 정운화씨 등 지역 작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 작가들은 조각품 안에 LED 조명을 넣거나, 빛 자체를 소재로 한 설치 작품을 만드는 등 빛예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들은 만들어진 미술 용어인 빛예술은 LED를 가미한 조각, 설치 작품 등을 뜻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법을 통해 차별화된 작품 활동을 하고, 성과를 모아 내년 1월께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또 LED 관련업체인 (주)이노센코리아, 라이텍코리아(주), (주)신유, (주)에포크 산업, (주)오픈테크놀로지 등 '광아트를 활용한 기술 공동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기술제공과 상품화 등을 협약했다.

LED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의 도움을 받는 게 효과적이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 등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작가들의 작품을 모델로 예술 가로등, 병원의 환자를 위한 특수 조명등을 만들 계획이다.

라이텍코리아(주) 이상진 이사는 "지역의 산업 기반이 열악해 대부분 LED업체들이 전문 디자인

팀을 따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작가들의 창조적인 작업을 지켜보며, 차별화된 디자인과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빛예술연구회는 또 광주디자인센터에서 1억원 지원을 받아 조선훈 제품디자인과와 함께 LED 제품도 디자인하는 '산학센드위치' 협약도 맺었다. 이 작업을 통해 빛예술연구회는 광아트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작가의 창작, 학술적 지원, 상품화가 논스톱으로 이뤄져 참여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가 정선휘씨는 "창작과 지역산업이 함께 발전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도심 공공미술 작업도 펼쳐 장기적으로 광주에 빛예술 작품을 모은 '빛예술 공원'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견 화가들의 '좋은 만남 좋은 인연'

노익웅 교수 등 20명 18일까지 대동갤러리 단체전

광주지역 중견 화가들의 모임 '한울회'(회장 노익웅)는 오는 18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대동갤러리에서 단체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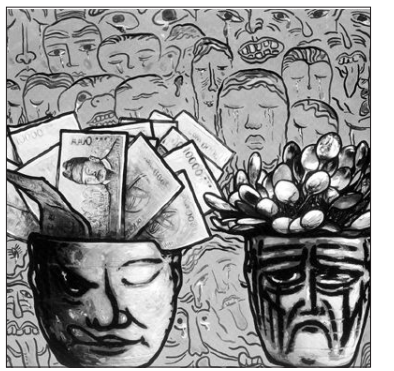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김기수, 김성식, 김재일, 김중욱, 김진열, 김충근, 김필수, 나영주, 문재평, 박철교, 신호재, 양원철, 이정래, 장복수, 장지환, 정성복, 정영준, 정홍기, 최재창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좋은 만남 좋은 인연'을 주제로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서예,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

인다. 양원철씨는 연일 사이로 노니는 원앙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랑이야기'를 전시하고, 이정래씨는 과도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포착한 '과도'를 선사한다.

또 김성식씨는 유리처럼 투명한 공을 형상화한 '생동'을 출품했고, 나영주씨는 단풍이 물든 산자락을 표현한 '만추'를 선보인다.

노익웅(호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회장은 "작가들의 열정과 다양한 미술 장르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노익웅 작 '기인부부'

있는 전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 그리고 저편에는...

광주로알발레단 15일 문예회관 하안그림자&갈라페스티벌

광주로알발레단이 '하안그림자 & 갈라 페스티벌'을 15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창작 발레 '하안그림자'는 지난해 광주무용제 최우수상 수상작품으로 '빛 그리고 저편에는', '내 안에 검은 그림자', '또 하나의 빛'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박진감 넘치는 남성 군무가 매력적인 작품으로 벨리케·강진구·이상규·

조성훈·송관석씨 등이 출연한다. 2부는 유영 발레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구성된 갈라 콘서트도 진행된다.

'해적' '돛키호테', '다이애나와 악테온', 'Stars & Strip' 등 유명발레의 2인무를 선보인다. 출연자는 채지영·김기민·강진구·신승현씨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인·평론가 강경호 '영혼'을 부른다

시집·미술평론집 동시 출간

시인이자 평론가인 강경호(52·사진)씨가 시집 '휘파람을 부는 개'와 미술평론집 '영혼과 형식'(시와사람 펴냄)을 동시에 출간했다.

자신의 네 번째 시집이기도한 이번 시집에서 강씨는 표제작 '휘파람을 부는 개'를 비롯해 겸손과 미덕의 경계를 허무는 삶에서 나온 다양한 시 75편을 4부로 나눠 엮었다.

특히 이번 시집의 두드러진 특징은 영혼에 관한 탐구가 많다는 것인데 시인은 '영혼'연작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 모든 사물과 소통하는 형식을 통해 문헌에서 본질과 영혼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번 시에 대해 오세영(서울대 명예교수) 시인은 "정 시인은 흡사 수도승이나 수좌와 같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삶과 세계에 대한 통찰과 예지로 번득



인다"고 말하며 "감각적 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젊은 시인들에게 충분히 귀감이 된다"고 평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강씨는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으로 강홍운, 국중욱, 김영태씨 등 미술작가와 사진작가 한상근, 강봉규씨 등 총 12명을 감성적인 글로 섬세하게 평하고 있다.

한편 출간인 강씨는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고 문예지 '시와사람'을 창간, 현재까지 발행인과 주간, 광주전남현대문학연구회 소장을 겸하며 광주대에서 시 창작을 강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집과 평론집 출간기념회는 14일 오후 4시 하당코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1-674-531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

오늘 동아리 한마당 축제

광주북구일곡도서관(관장 황은주)은 13일 오후 7시30분 도서관 1층 공연장에서 '제8회 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동아리 한마당 축제에서는 바이올린 2중주 '사랑의 인사', 플루트 '시월의 어느 멋진 날', 클래식 3중주 '에스파냐까나' 연주와 팝송 'Waterloo' 'Power of love' 공연이 펼쳐진다.

또 청소년 합창단, 시낭송, 어린이구연동화 등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편, 광주북구일곡도서관은 도서관 활성화와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일곡시회, 클래식타, 팝송, 동화읽는어른모임 등 20여개의 동아리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문의 062-575-345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지인 첫 해금 독주회

14일 광주 KBS홀

강지인 첫번째 해금 독주회 'Dream Of The HAEGUM'이 14일 오후 5시 광주 KBS홀에서 열린다.

강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김영재류 해금 산조를 비롯, '두줄의 시계', '비누방울', '또 다른 길', '검은고양이 베토', '가야금 삼중주를 위한 파렐렐의 캐논' 등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곡선미(가야금), 이왕재(장단), 김수환(첼로), 오혁(베이스), 하근(드럼), 김정화(피아노)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국립전통예술고교를 졸업한 강씨는 중앙대 국악관현악과에 재학중으로 현재 해금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나무(竹)악기 경연대회, 영광발성포단오제 제8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등에서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꼭 부르기

오늘 호남대학교 티브라운

매일 한차례씩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가 꼭 부르기'의 11월 행사가 13일 오후 7시30분 호남대학교 내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아, 가을도 간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향 생각', '그리움', '그리운 금강산' 등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정삼주 시 박찬석 곡 '낙엽'을 함께 배워본다.

다일 공연에서는 특히 회원 천혜영씨가 자작곡 '언덕에 올라'를 직접 선보이며 살레시오여중 3학년 윤경선 양이 김연준 곡 '무곡'을 선사한다.

가곡부르는 매월 두번째 금요일에 열리며 티켓(1만원)을 구입하면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다. 문의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Blessing'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ategories like education, food, and professional services.